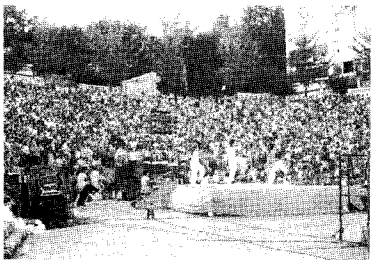
# 시대흐름 발맞춘 대중성 확보 '0'순위

## 변화하는 문화운동 실상과 의미

문화 운동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과거 문화 운동이라면 본 행사 이전의 전행사 쯤으로 인식되었고, 관객은 그저 관객일 뿐이었다. 흥을 돋구어야 할 문화 행사가 그리 즐거운 것만도 아니었다. 따라서 별다른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 운동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90년도 들어 대학생들의 탈정치, 탈이념이 가속화하면서 집회 참여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학생들의 참여는 행사 준비위원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핵심적인 사실은 지금의 상황은 문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운동의 영역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 정치 투쟁 일변도로 치달았던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거듭 나면서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표방한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화의 대중화의 측면에서 한총련의 올해 사업 계획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 대학생 영화제'. 영화제는 학생 대중과 같이 호흡하려는 한총련의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대학생들은 영상의 세례를 받고 성장한 영상세대이다. 컬러 텔레비젼을 보고 자라났으며, 전자오락, 비디오에 익숙하다. 문자보다 영상이 익숙한 이들에게 영상의 파급효과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 89년 원천봉쇄 속에서 첫 공연이 열린 이래 올해 다섯번째로 우리학교 노천극장에서 치뤄진 노래판굿 '꽃다지'. 해마다 2, 3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여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로 자리잡았다.

입수경 통일 문학상, 통일 노래 한마당에 익숙한 학생들도 영화제는 분명 새로운 소식이다. 강주협 한총련 영상사업단장은 "지금은 영상예술시대"라고 전제하고, "영화 창작 역량의 강화라는 토대에서 학우 변화의 흐름을 좇아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내용의 제한이 없다. 작품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자가 아마추어이니만큼 모방한 세련미보단 실험정신을 높이 살 뿐이다. 16㎜ 영화 제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서 사진 제작비 지원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올해 문화계의 가장 큰 지각변동이라면 민예총의 사단법인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22일 전격적으로 사단법인화 추진 방침을 표명한 민예총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합법적를 안에서 대 국민적 제인을 더하기 위해서"라고 사단법인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진로 보인다. 동시에 제도권 진입은 정부의 간섭이라는 등식이 이미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0년동안 군사 정부의 틈해 속에서 성장한 예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법인화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문화 운동의 변화를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은 각 대학 내에서이다. 지금 대학가는 신세대 논쟁이 한창이다. 80년대 리얼리즘의 시대를 살았던 고학번들에게 있어 포스트 모던한 현상황과 신인류는 사치일 뿐이다. 그러나 대학가 문화의 최대 과제로 등장한 것은 야타족으로 대표되는 퇴폐문화 척결과 건전한 학내 문화의 조성이다. 여기에다 여성문제는 대학가의 핵으로 떠올랐다. 대학은 여성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집단이지만 역설적으로 여성문제의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는 평등한 듯 하지만 은연 중에 드러나는 성차별과 남자와 평등한 대학 생활을 했던 여대생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차별에 부딪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60년대 산 신세대 문화 평론가들의 출현도 대중에게 다가가는 문화 풍토에 기여했다. 문학, 음악, 미술등 고전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현상의 과학적 분석을 위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신세대, 광고, 편의점 등 무엇이든지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급문화와 대중 문화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오히려 대중과 동떨어진 문화는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게 되었다.

〈김중석 記者〉

**한총련 지금은 영상시대…영화제 개최**

**민예총 문민정부 출범…사단법인 등록**

**대학가 신세대 논쟁절정-여성문제 부각**

**문화평론가, 문화적 엄숙주의 허물어**

## 휴전선에서의 대화④

# 변화외면…사상교육 강화

'우리식 사회주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 '주체의 나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등은 북한의 정치적 색깔을 잘 나타내는 구호들이다. 이러한 구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교양, 학습되어져 의식이나 실생활에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내가 군복무하던 90~92년도는 기히 격변의 시기라고 해도 파언이 아닐 정도의 개혁과 개방적 사건들이 빔발했고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두드러졌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속에서 북한은 겉으로는 따지못해 따라가는 흉내를 내지만 안으로는 앞에서 나열한 구호들로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몸부림에 바쁘다. 인민군친구들 역시 변하는 현실 앞에서 많은 갈등을 했어야 했겠지만 겉으로는 늘 담담하다고 말할뿐이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나의 질문에 인민군 은남은 "바깥에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끄덕없다구. 그런 나라들에는 주체사상처럼 튜렷한 이념도 없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처럼 훌륭한 영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필승불패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구"라며 여타 국가들과 단순비교를 강력히 거부했다.

### 개혁·개방 범람의 시기

그렇다면 그들이 강조하는 '우리식'이란 도대체 어떤것인가? 이글을 통해 내가 감히 북한의 정치적 특성을 논하기 보다는 내가 나눈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느낄수 있었던 바를 전할까한다. 먼저 김부자에 대한 우상화가 내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김부자를 부를 때 쓰는 거창한 수식어들 하며, 그들에 대한 황당한 이야기들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고, 대남방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김부자찬양 방송들의 비현실성이야말로 나의 상식밖 문제였다. 또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보다 침단화가 철저하며 통제가 신한것 같다. 언론의 역할이 우리 그것과는 엄연히 다르겠지만 언젠가 북한의 신문은 몇장이냐고 물었더니 "남조선은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나쁜 일들도 실어야 되니까 신문이 여러장수이지만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좋은 일만 쓰기 때문에 많은 장수가 필요없다구"라고 대답하는 철민이의 말에서 북한식 언론의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 또한 북한식 특징이라고 넘겨버리기엔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은것 같아 유감이다.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 역시 없겠지만 북한에서는 정보통제로 알게끔 침해한다든지, 아직까지 인민재판이 건존하며, 여행증 식량권으로 여행을 통제한다는 등의 제도적 측면을 차치하고서라도 시베리아 벌목장내의 비밀감옥 운영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인권현실을 검증할 수 있다.

### "전쟁 몰고 다니는 미국"

그리고 대화에서 정치적 쟁점사항으로 인민군들과 선경을 했던 고정예뉴가 있는데 소개할까 한다. 통일방안에 대해 인민군들은 김일성이 창안했다는 연방제를 주장하며 한민족공동체안을 제도통일, 승공통일, 누가 누구를 먹는 흡수통합방식이라며 강력히 배도했다. 한편 남북대화 중단의 책계로 되고있는 핵사찰문제 T·S문제, 주한미군철수문제 등은 아직도 실세를 유지하고 있는듯 하다. 특히 그들이 표방하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서 중심고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철수를 자주 제기했는데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했으며 김포전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은 타국지 무력을 가지고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것야 미국은 왜 세계전쟁에 꼭 끼어들어 전쟁을 놔고 다니나?"라며 미국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뿐이었다. 반면에 소련의 보수파군부의 쿠데타가 발발했을 때 인민군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 사실을 3일내내 강조했지만 3일천하로 쿠데타가 실패하자 인민군 친구들은 3일간 대화에 나오질 않았다.

### 말처럼 쉽지 않은 통일

아무튼 국제적, 국내적으로 북한은 혼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통일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민족에게 다가온, 통일조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촉구되는 시기임을 잊지 만아야 하겠다. 나는 군복무기간의 체험을 통해 남북통일은 말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과 외형적통일을 이룩치라도 진정한 공동체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끝〉

양 헌 찬
〈점경대 경영·3〉

□92년도 법학과 학생회장 권승현 유고집 '교감하고 싶다…'

## 상지, 병상일기 — 수상 산문 한데 묶어

### 올바른 삶에 대한 진지한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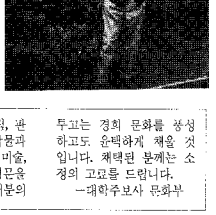
92년도 법학과 학생회장을 지낸 권승현군의 유고집이 비매품으로 나왔다. 유고집 '교감하고 싶다. 누구든지와 /'는 권군이 고교때 가입한 문학회 '상지 등기 회원들이 권군이 중학교때부터 써온 일기와 수필집, 소설을 묶어서 펴낸 것이다. 이번에 실린 수필들은 각종 백일장 입선작이며, 소설은 원광대 신문사 주최 문예에서 장원한 작품이다.

92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법학과 학생들은 그들의 학생회장을 볼 수 없었다. 학생회장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수군거렸고, 2학기 거의 끝날무렵 학교 현쪽에는 조그마한 자보가 초라하게 붙여졌다.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듯 했습니다." 권승현(오른쪽 사진), 90년도 법학과 입학, 91년 법대 사회부장, 92년 법학과 학생회장.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학생회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조차도 분향을 마치고 "언제나 웃어주고 참 좋은 형이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는 지금 없다. 유고집만이 그를 쓸쓸히 추억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난처병에 시달리며 쓴 일기는 곧 그의 삶이다. 삶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무서운 신념과 사랑으로 살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우리네의 삶이란 단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엔 너무 고차원적인 것이다. 살더라도 어떤 보람으로 살아 있는가가 끝끝내 문제로 남을 것이다"(90년 3월 31일)

죽음을 가까이 두고서는 좌절과 외로움, 절심과 각오의 교차속에서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엿볼 수 있다. "처절하게도 고독하고 외로운 것은 내가 고깃덩어리기 때문이다.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것이 왜 이리 두려운가?"(92년 9월 20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져야 할 기본적 품성이다. 더 이상 앓는 소리를 말아야겠다. 속으로 앓자. 그리고 좀 웃자"(92년 10월 9일) "교감하고 싶다. 누군든지와 / 사람은 누구나 외롭겠지만 너무 외롭다. 처절하게 한번 살아보자. 비생산적인 고민은 이제 끝내자"(92년 11월 2일)



마지막 일기에서 그는 교감하고 싶다고 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소박한 소망의 표현일 것이다. 비생산적인 고민을 끝내자고도 했다. '고민을 끝내자'는 역설적인 표현이었을까.

〈김중석 記者〉

시, 소설, 수필, 그림, 판화, 사진 등 각종 창작물과 책,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무용 등에 관한 비평문을 모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경희 문화를 풍성하고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대학주보사 문화부

□새로 나온 책

강준식 '적과 동지(전7권)'

## 민족사 인식의 전환점 마련

해방에서 분단으로 이어지는 격변기 인간들의 '삶의 총체성'을 그리는데 도전한 장치소설 강준식의 '적과 동지'가 출판되었다.

여운형을 해방국면의 중심에 놓고 해석하여 민족사 인식의 중요한 전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소설이 아니라 8·15이후의 민족적 운명을 해석해내는 역사적 문헌이라고 한만하다.

작가는 한시대를 움직인 인간들과 그 역사적 진실의 형상화를 통하여 살아숨쉬는 현대정치사의 인식을 시도하며 이런 점들에 촛점을 맞추어 볼 때 이 소설은 지난 시대 민족사를 바로 밝혀주는 심판서일 뿐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역사적 현실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응휘하려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족통일 성취를 위한 지혜와 전술전략을 제공한다.

한길사/각권 5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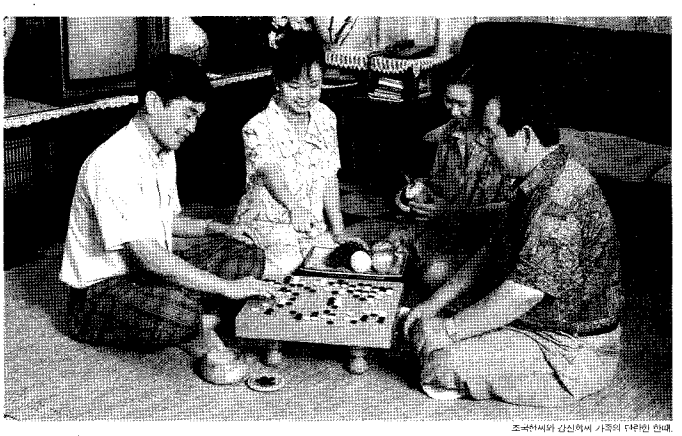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한솥밥 한식구)

한솥밥 한식구는 노(勞)와 사(使)가 서로 화합해서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대립의 가보다는 공존공영이 입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내어 함께 나누고, 회사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선경의 노사 화합정신입니다.
이것 등해 선경의 구성원들은 한솥밥 한식구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더욱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 새내기와 터줏대감의 한집살이

화학공학을 전공한 선경인더스트리 직물공장
강진희씨의 패기만만하던 신입사원시절은
숱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소한 호칭에서 일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상급자로서 나이많은 현장사원들과 함께
생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결혼때문에
방 구하느라 애를 먹던 무렵—
"강기사 비록 좋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집에
들어와 사는 것은 어때요?"
이런 제의를 한건 뜻밖에도 같은 분임조의
터줏대감이자 그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했던
조국현씨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내기와 터줏대감의 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근무중에는 물론 퇴근후에도 속깊은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기사 생각이나 의견에 동감하는 것도
있었지만 현장경험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조금 심하게 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회사가 오늘에 이른 것도
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형님같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 아닙니까?"

노사관계는 서로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해가는 관계입니다.
마치 한솥밥을 먹는 한식구처럼 같이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이러한 문제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현씨와 강진희씨 가족의 다정한 한때.

SUNKYONG
鮮京그룹